



자료: 人蔘産業經濟研究 pp77 2011, 王軍

그림 20. 중국인삼 수요량의 증가 추이 (단위: 톤)

#### 다. 한국과 중국의 인삼 교역

인삼은 삼국시대부터 중국 등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 빠질 수 없는 필수품이었다. 그러나 말에서 바로 캐낸 인삼은 오래 보관하기가 어려웠다. 이 단점을 보완한 것이 인삼을 씻어서 껍질을 벗기지 않고 햇볕에 말린 백삼이었다. 인삼의 교역은 중화질서를 바탕으로 조공이라는 형식을 통해 교역을 해왔다. 특히 송나라 이후는 소위 중화질서라는 것이 정치질서에서 교역질서로 전환되게 되는 시기로서 경제적 이해관계는 곧 정치적 질서관계와 직결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육상은 물론 해로를 통한 교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교역품은 주로 자기 나라에서 나오는 특산물이 주였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었던 품목이 인삼이었다. 물론 생산량의 한계성 때문에 대량으로 교역이 됐던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이들 교역 품목에는 인삼이 들어가야 했다. 이처럼 각국이 인삼을 중시하게 된 것은 의약품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 큰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으로 대용할 수 있을 만큼 인삼의 효력이 대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점점 널리 퍼지게 되어 병자들에게 약을 권할 때 인삼이 들어 있지 않으면 그 약을 거절할 정도로, 인삼이 들어가야 자신의 병이 낫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인삼이 “오장을 보신해 주고, 정기를 증가시켜주며, 배 멀미, 허약체질, 결핵, 중풍 및 천둥이나 지진에 놀란 사람들에게까지 기를 보충해 주는 효력이 있다”고 선전되었다. 예전 아무런 의료시설도, 약도 없던 시기에 인삼이 가지고 있던 효력을 생각하면 전혀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리하여 중국에 도움을 청하러 가거나 유학 등 각종 목적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의 짐 속에는 언제나 인삼이 들어 있게 마련이었고 이를 받아든 중국인들은 웬만하면 청을 다 들어 주게 되었다. 일본에 가는 통신사들도 반드시 교환 품에 인삼을 넣었는데, 매번 갈 때마다 약 100근씩의 인삼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도쿠가와 막부 시절 인삼에 매료된 장군들은 인삼을 일본 내에서 재배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고, 쓰시마 도주를 통해 인삼 종자를 얻으려 명령을 하달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18세기 초반에 이르러서 간신히 재배에 성공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현재에도 혼슈(本州) 북쪽의 산간지방에서 인삼이 생산되고 있기는 하나 그다지 활발한 편은 아니고, 또 효력 면에서도 고려인삼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 일본인들도 인삼재배에는 맥을 못 추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인삼은 하늘이 우리 민족에게 내려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

##### (1) 중국의 인삼 교역

그림 21은 1998년 이후 2014년까지 중국 전체의 인삼 수출입 동향을 살펴 볼 수 있다. 1998년 이후 10년 동안의 인삼 수출은 제 자리 걸음이었고 수입량은 감소하고 있었다.